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 한국에 정책 권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권고 이행 땀 생산성 향상·여성고용 촉진·소득 불균형 줄일 수 있을 것”

도전과제로 ‘고령화·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꼽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 과제로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등을 꼽았다.

OECD는 28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에서 회원국들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회원국과 주요 비 회원국을 8개 그룹으로 나눠 향후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함께 6그룹에 속했다.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등이 도전 과제로 제시

됐다.

OECD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구조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OECD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 정책에 대해 ▲모든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제공 ▲2016년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 시행 등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 ▲육아휴직 촉진정책 도입 등을 이행 실적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면서 소득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

단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최근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이행 상황과 관련,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이라며 “여성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도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력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하라”며 “서비스 부문 진입장벽 제거, 의료보험·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주 기자

호남 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 1583억 지원

익산국토청, 16개 지자체에 지방하천정비 1,453억·국가하천유지보수 130억

익산국토청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총 1,583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한다.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 등 16개(601km) 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1,583억원(지방하천정비사업 85건 1453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 13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영산강과 섬진강의 지방 저수

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그 외 공민 및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과 영산강·섬진강을 제외한 14개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보조금은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방축제, 보축 등 치수사업(55건, 800억원)과 지역의 역사·문화의 반영과 건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

을 위한 친수사업(30건, 653억원)에 사용된다.

국가하천유지보수 보조금은 제방, 수문 등 하천 내 치수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와 고수부지 내 주민편의시설 정비 등에 사용된다.

박덕호 하천국장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비 보조금은 치수·이수 및 하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적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KT, 소아 유전질환 검사 ‘노벨가드’ 서비스 개시

KT전북본부는 오는 3월2일부터 대자인병원과 함께 전북최초로 소아 발달장애 유전질환 선별검사인 ‘노벨가드(NobelGuard)’ 서비스를 개시한다.

‘노벨가드’는 KT와 유전체 진단 전문기업 랩지노믹스가 공동개발한 차세대 유전자 검사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신생아의 약 6%가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수는 매년 약 800만에 이른다.

이 중 난청과 같은 유전질환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지만 신생아의 특성상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

대자인병원에서 3월2일부터 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벨가드’는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전질환과 연관된 염기서열을 한번에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기존에 검사할 수 없었던 유전 변이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컨대 윌슨병의 경우 기존 유전체 분석법으로는 ATP7B 유전자 내 8개 염기서열만 확인하지만, ‘노벨가드’는 약 4,400개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위험 변이를 찾는다.

또한 50여 종의 유전질환 분석을 위

해 약 3,500개의 국내외 유전체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우리 몸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면 다양한 유전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때 한 명당 30억에 달하는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중소 병원들은 이러한 컴퓨팅 파워를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전체의 대부분만 분석할 수 있고, 부모들은 난청, 윌슨병 등 각각의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신광영 기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각광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대학 신입생 연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기존의 숲문화, 선후배간 군기문화 방식을 탈피해 학과 교육 과정 소개, 대학생활 안내, 특강 및 연구기관 견학 등 새내기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탁 운영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게 대형 세미나실, 회의실,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한곳에 모여있는 것 외에 깨끗하고 맑은 청정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에도 전주대 나노신소재

‘시장 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전북중기청, 3월 24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시장 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추진했지만 실패했을 때 이를 용인(자산화, 재도전)하고,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특히 창조적 R&D 수행에 역점을 뒀다는 게 이색적이다.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15억원으로 과제당 개발기간 2년, 최대 8억원(1단계 최대 4억원, 2단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기술개발사업 역량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 기술로드맵 전략후보군(467개) 중 시장창출적합분야, 중소기업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73개 품목을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 온라인(<http://smtech.ga.kr>)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생산기술과(063-210-6452)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포켓몬 20주년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지난 26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포켓몬 20주년을 기념해 2016 포켓몬 페스티벌’을 진행 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5층 유리윤지에서는 피카츄, 피이리, 꼬부기 등의 포켓몬 캐릭터의 인형, 머그컵 등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건축면적 제외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복합건물로 지을 때

앞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

3.1절 맞이 애국 마케팅 ‘눈길’

다가오는 3·1절을 앞두고 외식·패션 업계가 애국심 마케팅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캐주얼 스트리트 쉐러스는 삼일절 하루 동안 ‘태극기아츄’를 선보인다. 대표 메뉴인 ‘아츄(아이스크림+썬러스)’에 사전 제작된 미니 태극기 초콜릿을 얹어 삼일절의 의미를 담았다.

또 당일 전 매장에서 판매되는 태극기아츄 매출액의 3.1%와 함께 이와 동일한 본사 기부금을 더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에 전달할 계획이다.

삼일절을 잊은 청춘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treethumskorea>)을 통해 민족대표 33인을 소개하고, 태극기아츄 구매 고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33명에게 국기함을 증정한다.

신성통상의 SPA 브랜드 탑텐(TOPTEN)은 2016년 ‘삼일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맨투맨티셔츠부터 욱스포드 셔츠, 데님셔츠, 치노팬츠 등 다가오는 봄 시즌에 어울리는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또 삼일절을 모티브로 맨투맨 티셔츠와 포플린 셔츠는 1만4900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편의점 씨유(CU)는 오는 3월1일까지 전국 9400여개 매장에 게양된 태극기와 간판이 보이도록 인증샷을 찍으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

/이성주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걸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